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03>

JCCT 2022-9-12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다각적 교역을 위한 경제적 소프트 파워 진출 방안

Advancement plan into economic soft power for multifaceted trade in Morocco, North Africa

서대성*, 서병민**

Seo DaeSung*, Seo ByeongMin**

요약 본 논문은 모로코의 종교적 배경과 역사문화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모로코 이민자들의 정착문제나 다양한 목적의 모로코 협력을 위한 방안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모로코는 교역에서 개방적이고, 사회 문화적 면에서는 전형적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서구 유럽문화의 교류를 해왔지만 전형적인 무슬림을 유지한다. 특히 모로코가 과거 삼각 교역의 중심지로서, 디아스포라와 물류 허브였고 북미로 진출하였다. 앞으로도 글로벌 다각교역의 문화 확산의 교두부 역할을 한다. 지금은 모로코 교역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의 개방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접하게 된다. COVID-19 이후 소프트파워가 여성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모로코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진출이나 서비스 금융 및 지역적 차원의 접근을 위한 글로벌 삼각 전략지로서, 우리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문화적 산업 및 서비스를 현지에서 수용하게 됨을 방증한다.

주요어 : 모로코, 북아프리카, 로마-이슬람 문화, 은전, 삼각 교역, 소프트 파워

Abstract This paper attempted to systematize the settlement problem of Moroccan immigrants and the plan for Moroccan cooperation for various purposes by understanding Morocco's religious background and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Morocco is open to trade and typical in the social and cultural distance. It has been exchanging Western European culture, including Spain and France, but maintains a typical Muslim. In particular, Morocco was once a center of triangular trade, a diaspora and logistics hub, and advanced to North America. It will continue to serve as a bridgehead for the cultural spread of global square-traded. Now, Moroccan trade is formed around France and other European regions. This is encounter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due to the progress of opening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African region. Since COVID-19, soft power has been increasing women's accessibility. As a global triangular strategic location for business or service financing and regional access to Morocco, we demonstrate the local acceptance of cultural industries and services, the soft power of Korea.

Key words : Morocco, North Africa, Rome-Islamic Culture, Coin, A Triangular Trade, Soft-Power

*정회원,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교수 (제1저자)
**정회원,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18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31일

Received: July 18, 2022 / Revised: August 13, 2022
Accepted: August 31, 2022
**Corresponding Author: dais3s@gmail.com
Dept. of Paideia, Sungkyul Univ, Korea

I. 서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의 산업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 지중해 교역과 문화를 분석해야 한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모로코는 입헌군주제로서 상·하 양원제로 된 정치체제를 지닌다. 정부수반(Chef du gouvernement)은 총리가 라바트(Rabat) 수도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고대 모로코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로마인 정착지 내에 상당한 도로가 존재했다 [1]. 볼루빌리스와 살라 콜로니아 도시에서는 큰 자갈들로 포장된 넓은 도로가 발견된다. 오늘날 카사블랑카 지역에는 기원전 15 C 부터 페니키아인들과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작은 항구가 있었다. 이 항구는 카나리아 제도 섬으로 향하는데, 로마 탐험대가 사용하였다. 상업문화도시로 카사블랑카(Casablanca)와 관광 지역인 탕헤르(Tangier), 페스(Fes)와 마라케시(Marrakesh) 유적 등으로 나뉜다 [1].

모로코는 유럽과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고급 유럽 제품에 대한 모로코 고객 충성도는 높다. 반면, 한국은 K-문화가 청소년부터 젊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제품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 한국과 FTA합의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수입 관세 장벽이 있다. 모로코의 경기는 최근 글로벌 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대외적자이다. 현재는 수입 절차 및 유통, 마케팅 분석, 파트너 협력 등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모로코는 한국의 휴대폰과 가전제품과 같은 글로벌 소비재에만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모로코는 지리적 거리, 언어(프랑스와 아랍), 역사적 문화(이슬람)가 다르기에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 [2].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럽, 로마 문화, 이슬람 문화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K-문화(팝, 드라마, 영화 등)를 확산되면서 이들과 공유할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는 문화 서비스 무역을 통해 외국 사업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첫째, 모로코는 지리적 개발 면에서 다양하다.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 남서부는 대서양기후, 남부는 사하라 사막 기후로 크게 우기와 건기로 구분된다. 리프 산맥과 만년설의 아틀라스 산맥에 내리는 연평균 1,500mm의 강수량을 이용하여 관개농업을 하고 있다. 알제리·모리타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모로코는 지질학적인 불안정한 지대에 속해 지진이

발생한다. 비교적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모로코 자원은 인광석(세계 3위 생산국), 철, 망간, 구리 등이 있다 [3].

둘째, 모로코는 종교 문화적 관광 개발 면에서 다양하다. 북부 아프리카의 마그레브(Maghreb) 지역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이 포함된다. 원주민인 베르베르인(모로코,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 지역)과 무어인(Moor: 711년 이후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아랍계 이슬람교도)들이 속한다. 모로코는 19세기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이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도시들의 점령지역(세우타, 멜리아, 지브롤터)이며, 이슬람과 기독교 간 충돌 지역이었다. 본 논문은 북아프리카 고대 로마시기와 이슬람교식 모로코의 자본주의적 배경과 소프트파워인 문화적 특징을 다룬다. 논자는 모로코 이주자들의 정착과 다양한 모로코 교역을 통해 나타난 경제적인 문제를 연구한다.

II. 선행연구

1. 지역 협력 연구

기존 연구들은 그린 경제성을 논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적 발전과 혁신이 모로코에서 투자유치가 절실한 이유가 있다. 현재 근동과 북아프리카(NENA) 지역에서 모로코의 그린 에너지 및 경제 논쟁에서 주요 주제가 되었다. 기존 학자는 모로코에서 건축 분야의 환경 혁신의 통합과 확산에 직면한 경제적 장벽을 분석했다 [4]. 모로코에서 제로 에너지 건물의 건설과 에너지 생산을 위한 혁신적 바이오 소재(헴프리트:그린 건축자재)와 곡선 태양 전지 패널과 관련이 있다. 이는 높은 비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거시 경제 수준에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또다른 접근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첫째, 지중해 국가의 연합의 경제 성장은 비용인 탄소 배출과 함께 온다. 둘째, 연합 차원의 정책 결정은 성장 야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5].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로코의 주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전쟁 인플레이션 압력과 매우 불확실한 맥락 속에서 여전히 경제를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천연 자원 국가, 특히 에너지 수출국들이 위기의 기회를

감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치솟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두 배 상승에도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다 [6]. 이것은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공공 부채의 경로에 대한 외부 불균형과 우려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는 다가오는 불균형과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그림 1.2는 모로코의 생활경제 관련 서비스분야의 수출입 규모이다. 교역 파트너의 다자화가 모로코 경제 발전에 필요함을 역설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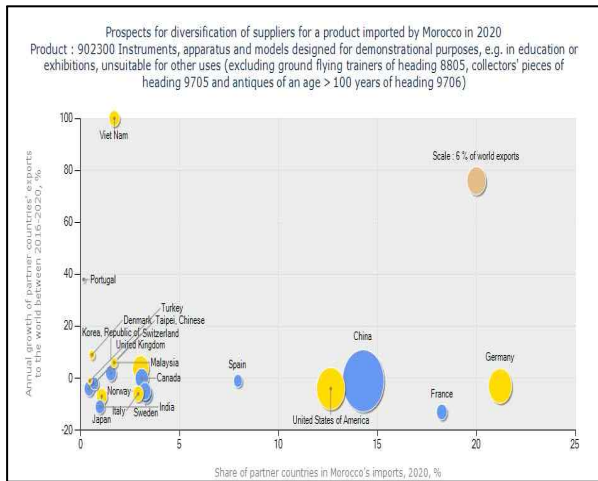


그림 1. 모로코 수출입 파트너 규모
 Figure 1. Moroccan Import and Export Partners size(ITC,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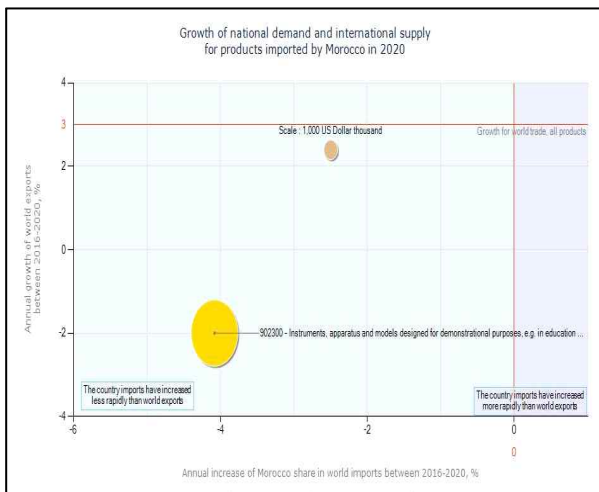


그림 2. 모로코 수출입 증가
 Figure 2. Increase scale in Morocco's import & export(ITC, 2021)

2. 중산층의 문화적 연구

현재 지중해-북아프리카 도시 전역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모로코도 경제문화 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산행 연구들은 중산층의 출현이 도시 형태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일치시키고 세계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는다고 본다. 그들은 먼저 아프리카 맥락에서 중산층을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함을 역설한다 [7]. 이는 소득 수준에 맞는 접근 방식인 것이었다. 그들은 카사블랑카 시의 주택 속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 분석을 통해 주택 유형학으로 분석했다 [7]. 이는 현재 중산층이 소득과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건물과 빌라가 현대식 모로코 주택보다 더 선호하는 대도시 문화로 바뀌고 있음을 알려 준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은 모로코 식품 구매 패턴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경제적, 남녀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는 COVID-19가 북아프리카 하위 지역의 3개국, 즉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의 여성 식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8]. 현재는 그들은 COVID-19가 북아프리카의 여성은 두려움, 불안, 지루함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더 많은 음식 소비나, 유해한 음식 선호, 많은 양의 음식비축 등이 쇼핑 습관의 변화로 나타났다 [8]. 우리는 이를 극복하는 방식이 모로코 여성의 한류 접근성을 높이는 이유들 중 하나로 본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COVID-19가 소프트파워를 분석할 수도 있다.

현시대까지도, 탄탄한 종교적, 문화적 공동체로써 지도층과 인종이나 여성들 간의 차별적 갈등을 극복했다 기보다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검은 모로코의 저자는 이를 노예제도, 인종, 이슬람의 역사로 보는데, 이보다 시기적절할 것은 없다고 본다. 과거 노예제도의 해결되지 않은 유산이 모로코의 주류 문화-사회-정치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는 현재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9]. 그래서, 본 논자는 현시대에 한-모로코간의 소프트파워로 과거의 관습을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서민 금융지원 연구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보조금의 역할이다. 북아프리카의 독립 이후, 정부의 보조금은 사회 계약의 초석이었다. 정부는 빈곤을 줄이고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현금을 지출했다. 모로코가 가능한 한 이러한 사회 계약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의 보조금을 제거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

하고, 일부 보상 조치를 시행하였다 [10].

모로코에서는 보조금 개혁에 대한 시위가 분산되었고 몇 년 동안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과 2017년 사이에만 탄압이 온건했다. 이러한 맥락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무거운 억압을 사용하기보다는 보조금 개혁과 관련된 해결책에 대한 정부의 초점을 촉진했다. 2017년 이후, 특히 모로코 북부에서 봉기가 증가했지만, 보조금 개혁에 의해 촉발되지는 않았다. 대신, 실업, 의료 서비스, 시민권, 당국의 대우, 정치 참여, 교육 및 부패와 같은 다른 우려는 시위운동에서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의 봉기는 억압이 증가하였다 [11].

따라서, 모로코는 전 세계적으로 LPG 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정부는 개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반발을 피하고, 최적의 보상 메커니즘을 이룩했다. 모로코 LPG 가격이 30% 상승하면 빈곤율은 9%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12]. 이는 소규모 산업 생산자와 농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모로코는 화석 연료의 수입 의존과 세계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 투자에 개혁이 시행되었다. 모로코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으로 효율 기기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와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모로코의 에너지 가격은 다른 MENA 국가보다 항상 높았다 [12].

과거 모로코가 에너지 자원의 90~95%를 수입하면서, 연료 보조금 예산은 2000년대에 10배 증가했다. 보조금은 여전히 정부 예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모로코의 보조금 법안은 2012년 GDP의 6.6%로 정점에 이르러서, 교육과 건강에 대한 총 지출보다 높았다.

2021년까지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액화 석유 가스(LPG, 요리 및 난방에 사용되는 부탄 가스), 밀가루, 설탕 및 물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보조금은 Tayssir(촉진;아랍어)와 의료 프로그램이 있다. 지리적으로 최소 80% 수업일을 학교에 다니는 조건으로 6~15세 아이들의 가난한 가정에게 현금 이체를 제공한다. Tayssir 프로그램은 빈곤 인원이 30% 이상이고 학교 결석률이 5% 이상인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 (RAMED)이다. 회원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하는 사회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그 회원은 국가 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무료이며 그 이상의 가구에는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 1인당 연간 약 12유로를 지불하지만 그 대상이 2013년 중반 510만 명에서 2017년 1146만 명으로 증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13-17]. 본 연구는 기존에 직접적인 금융지원방식의 연구들보다는 간접적으로 소프트 방식을 접근하였다. 이에 대한 경제적인 소프트파워를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모로코의 역사적 교역과 하드파워

1. 교역 역사적 배경: 하드파워(hard power)

모로코는 BC 2000년대 베르베르족이 정착하였고, BC 11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들이 모로코 해안으로 이주해 접촉하였다. 기원전 196년 로마 제국에 의해 카르타고가 함락된 후, 카르타고 난민들은 식민지의 항구 도시인 탕헤르와 라바트에 도착했다.

서기 25년경 베르베르족이 세운 모리타니 왕국이 등장했지만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지배를 받았다. 253년, 로마 제국은 베르베르의 저항으로 모리타니 왕국의 식민지화를 포기했다. 로마 제국군의 철수는 모로코에 권력 공백을 만들었다. 훈족의 유럽침입으로 5C 초 게르만 반달족이 스페인(Spain) 남부와 모로코 탕헤르, 세우타(Ceuta) 등을 침략하였고 교역로를 개척한다. 이후 533년경 동로마제국 유스티니아누스 1세 (Justinianus I) 황제 모로코는 BC 2000년대 베르베르족이 정착하였고, BC 1100년경부터 모로코 해안으로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해 접촉하였다. 기원전 196년 로마 제국에 의해 카르타고가 함락된 후, 카르타고 난민들은 식민지의 항구 도시인 탕헤르와 라바트에 도착했다. 이 지역에서 서기 25년경 베르베르족이 세운 모리타니 왕국이 등장했지만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지배를 받았다. 253년 로마 제국은 베르베르의 저항으로 모리타니 왕국의 식민지화를 포기했다. 로마 제국군의 철수는 모로코에 권력 공백을 만들었다. 그 이후, 훈족의 유럽침입으로 5C 초 게르만 반달족이 이주하면서 교역로를 개척한다. 스페인(Spain) 남부와 모로코 탕헤르, 세우타(Ceuta) 등을 침략하였다. 이후 533년경 동로마제국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는 모로코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달족을 다시 몰아내었고, 지중해 해상교역로 확보하였다.

2. 교역 역사적 조건 : 화폐와 보조금(면세)

당시 고대 지중해에서 로마교역의 화폐는 주로 드라크마와 므나였다. 므나(μν·미나)는 주로 귀금속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지만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화폐단위로 사용됐는데, 1므나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양인 100드라크마(테나리우스)다. 2011년 맥마스터 대학연구진은 고대 동전의 X선 분석과 각 화폐에 얼마나 많은 은, 청동, 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양성 마이크로 로브”를 통해서 활발히 교역했음을 밝혔다.

그림 3은 로마가 기원전 3세기 포에니 전쟁 중 튀니지를 중심으로 한 카르타고와 6세기 모로코의 반달족 등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위해 싸우고 있던 로마 시대에는 화폐 기록에서 인식될 수 있는 많은 예산 위기가 있었다.



그림 3. 고대 북아프리카 지중해 교역
 Figure 3. Ancient North African Mediterranean Trade(Source: Hellas)

오늘날 정부의 기업 보조금처럼, 페쿨리움(peculium, 개인 재산)을 주고 더 많은 금전을 맡기게 했다. 이 당시에 로마는 모로코 등 이외의 변방 개척시 속주 주변 지역을 이들에게 통치하게 하였다. 또한 작은 속주 하나를 다스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그 당시에 한 므나(약 1천만 원)를 받아 10배, 5배를 남긴 노예들은 각각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른 비유로 5, 2달란트(약 24억 원)를 받아 각각 2배를 남긴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주고 더 맡긴다. 또한, 노예 해방세 등으로 동시에 자유신분, 로마시민권 획득하여 신분상승이 가능하며, 엄청난 수의 군인과 민간인까지 황제 세베루스처럼, 속주민들이 충성, 헌신, 봉사, 협력에 대한 일의 대가로 로마 시민이 되었다.

3. 경제 교역지의 배경 :종교-소프트파워

모로코 등 로마 통치시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600여 년간 북아프리카 원주민의 종교이기도 하였다.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들로서 성 어거스틴, 터툴리안, 사이프리아니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의 알제리, 튀니지 지역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AD 680년경 이슬람 군대가 북아프리카에 다다른 이후로도 약 400여년간 명맥을 이어오다가 1076년 튀니지 지역의 카르타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폐쇄 되었다. 그러나 19세기말 프랑스의 모로코 진출과 함께 다수의 유럽인들, 아프리카 인들이 거주하면서 기독교가 다시 소개되었다.

동로마 시대이후 680년 세우타(Ceuta) 점령하면서, 모로코의 이슬람교가 도래하였다. 711년경 아랍-무어인들은 모로코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무슬림에 의해 로마 시대에 받아들였던 경제적 교육과 관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되었다. 732년까지 모로코의 베르베르인들은 빠르게 이슬람화되었다. 모로코의 이드리스 (Idriss, 811C) 왕조는 모로코 최초의 통일 왕조이다. 787년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 파로 분열로 시아파 이드리스(Moulay Idriss)는 모로코로 피난와서, 788년 왕조를 세웠다.

첫번째 교역지 페스(Fes)는 스페인과 북부 아프리카 연결할 중요한 도시였다. 이드리스 2세(Moulay Idriss II) 시기의 도시이다. 두번째 교역지 마라케시(Marrakech)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통하는 중요한 도시였다. 모로코의 모라비드 왕조(Al Moravids, 1062~1145)는 베르베르인들이며 모로코 수니파 이슬람이다. 모로코 남부 지방의 베르베르족은 마라케시(Marrakech)를 수도로 정하고, 모라비드 왕조를 세운다. 베르베르족들은 기독교인들의 스페인 남부와 발렌시아(Valencia)지역까지 다다른다. 이어 아프리카 세네갈,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룩한다 [1].

현재 당시의 영토개념이 1950년대 말 모로코 민족주의자들의 대 모로코의 근간을 된다, 모로코는 종교·사회 개혁 변화로 나타났다. 모로코 국왕이 최고 종교지도자를 겸임하며, 정부는 이슬람부(The Ministry of Islamic Affairs)로 신설하였다. 단,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주로 외국인을 위한 가톨릭 성당 (40), 개신교회 (11), 유대교회 (10)개 등이며, 모로코인에 대한 타종교 포교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99% 모로코 국민은 수니(Sunni) 무슬림(말리키 파)이며, 소수의 시아(Shia)파도 있다. 나머지 기독교도(카톨릭, 개신교 포함)는 1%, 유대교는 약 6,000명 정도이다. 중세시기부터,

유럽에서의 탄압으로 북아프리카로 건너온 유대들(ષ페과 라덕 유대인)은 모로코를 비롯하여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등등 폭넓게 살아 왔다. 모로코만도 약 10만 명까지 집단마을을 형성하다가, 현재 약 2만 여명만이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북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4. 경제교역의 배경 :문화 음악-소프트파워

모로코의 전통 음악은 아랍-안달루시아 음악과 베르베르 음악으로 구성된다. 스페인 그라나다/안달루시아 음악은 15C에 무슬림이 추방되면서 모로코에 정착했다. 9C 음악가 지르예브(Ziryeb) 음악은 아랍 전통음악에 스페인 무슬림 음악이 혼합되어 독특한 안달루시아 음악이 되었다. 안달루시아 전통음악은 라바트와 우즈다(Oujda)지역에 잘 보존되고 있다. 모로코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인만의 음악이 있었다. 후에 베르베르 음악은 아랍 음악과 혼합되어 발전했다. 베르베르인들은 음악이 전래이야기와 문화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베르베르 음악은 종교 의식, 결혼식, 축제, 행사 등에서 연주된다. 이는 목소리로 악기와 함께 춤으로 표현했는데, 헤다우아(Heddaoua) 악사가 마을마다 연주하며, 시 낭송처럼, 주술 형태로 나타낸다. 아랍 전통과 다르게 노래와 춤을 남녀가 함께 참여 한다. 또한, 모로코의 주요 교육 정책은 보편화, 모로코화 및 아랍화로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있다. 앞으로 모로코의 음악과 교육처럼, 종교문화도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다.

5. 한국적 관점: 교역의 전략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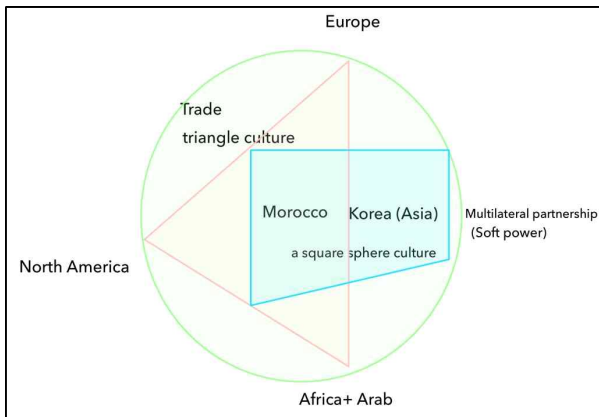


그림 4. 삼각 교역내 사각 교역 파트너의 다자화
Figure 4. The multilateral partnership of square trade by triangular trade(Source: Author)

과거 삼각 교역과 같이 북미, 서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계한 한국의 다자간 파트너십 교역을 형성이 그림 4 처럼 요구된다.

위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교역연구를 통해서 본 논문은 앞으로 모로코 중상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국가와 연결 벨트 이니셔티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한국주도의 아시아, 서구 및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국제 역량 협력의 잠재력과 추세가 중요하다.

국가 간 글로벌 관점에서 정교한 산업 간 종속성을 적합한지를 제시하였다 [14]. 협업 기회 지수 및 협업 위협 지수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네트워크의 위상 구조에 숨겨진 산업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다각적이 교역이나 삼각 교역으로 모로코와 협업하는 것이 더 FTA와 같은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GVC 산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IV. 모로코의 이슬람 경제문화 변곡점

1. 삼각교역과 문화적 복잡성

대륙 간의 삼각교역은 모로코 전체가 19C 북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거래되는 가장 큰 수출처였다. 이 지역은 주로 내수 시장이었으며, 다른 무슬림 영토로 재수출되는 노예는 거의 없었다. 1840년부터 효과적인 사하라 노예무역의 패턴은 변화했다. 유럽의 노예 폐지론 조치와 압력에 따라, 더 많은 노예들이 중앙 사막 시장에서 모로코로 이동했다. 그러나 모든 무역의 이해하기 힘든 통계와 다른 증거들은 마라케시 시장 통계를 뒷받침하지 못하며, 그들의 마지막 해에 모든 모로코 노예 수입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 이는 이슬람하에서는 높은 교육받은 노예들과 군대에 있는 이들만 자유를 얻었고 일반적인 노예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고 사망 기록도 매우 높았다. 로마시대 속주민이 노예 해방이나 시민권 취득이 용이했던 로마이나 비잔틴 제국과 다르다.

대부분의 노예(백인,흑인)들은 1299년 이후 오스만 제국 시대에 정복을 통해 얻어졌다. 흑인 아프리카 인은 사하라 사막을 가로 질러 서아프리카에서 모로코와 튀니지, 차드에서 리비아, 나일강을 따라, 페르시아만까지 운송되었다. 이 노예무역은 600년 이상 잘 정비되어 있었고 북아프리카 전체에 이슬람의 급속한 확장을 주도했다.

과거 삼각교역은 16C 말부터는 유럽인들의 대서양 노예무역에서 시작되었다. 서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설탕, 담배재배를 위해 아프리카계인 노예무역으로 이어졌다. 현재에도 모로코는 FTA 체결과 아프리카 대륙과의 지역 내 무역을 향한 방향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삼각교역을 통합하려 한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리카 대륙과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한 두 주요 무역 파트너인 모로코와 두 주요 무역 파트너의 무역 흐름을 분석되었다 [16-17]. 모로코가 여전히 효과적인 개발로 무역 잠재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은 교역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항만시설, 원전 등 자동차 산업, 부품, 어로 장비, 가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ESG의 재생에너지분야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등의 협력을 하려 한다. 이미 중국은 일대일로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북아프리카에도 진출해서 확장 중에 있다. 중국의 직접 투자분야가 인프라 품질, 정치 및 법률 환경, 정보 기술 응용, 금융 서비스 품질 및 거시경제 환경 지표와 관련 된 투자이다. 그러나 문화 서비스관련 투자는 그 양상이 다르다.

소프트파워의 하나인 문화는 경제, 관습, 종교, 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쌓여진 지속적인 모든 것의 복합체이다. 이는 종교나 신앙은 이주와 타 문화전파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구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모로코도 이슬람과 관련된 교육문화가 형성되었고, 교육을 받은 이들은 좋은 대우를 받았다.

중동 아랍 문화와 유럽 라틴문화의 복합체로써, 모로코인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유산과 건축 시각에서 종교적 대상이 된다. 또한 기독교의 유럽과 지중해 연안 국가, 아랍-아프리카, 무슬림들의 문화가 교역의 재조명해 볼 수 있다. 모로코 사회도 출생에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의 이슬람의 통과의례를 따른다.

하나의 공동체의 국가를 유지하려 했던 과거 역사처럼, 충성스런 로마 속주민의 리더 층과 이슬람 방식을 숭배하는 종교 지도층과 구별된다. 모로코 이슬람사회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없는 사회이다. 모로코인들의 대가족에 따른 여성, 어린이에 대한 이해 인식때문이다. 모로코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부요한 삶의 변화를 거의 기대할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의 소프트파워로 변하거나 상인으로서 경제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유럽의 모로코 쟁탈 교역사

스페인 군주제가 모로코, 북아프리카 영토, 오스만 제국과 체결한 평화 조약이 모든 당사국 간의 무역 증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스페인의 여러 항구들과 무슬림 상인들의 중요한 다른 도시들에서 식민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767~1814년 사이의 거의 반세기 동안, 다른 세 개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767~1780년까지 스페인 땅에서 모로코 상인들의 초기 경험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다. 1780년 아란후에즈 협정과 1779~1783년 스페인-영국 전쟁 사이에 모로코 상인들이 영구 식민지로 스페인에 통합되었다. 제3차 대전은 1799년 스페인-모로코 평화 조약에서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이 끝난 1814년까지 지속되었다 [18]. 스페인은 계속해서 모로코 전역을 식민 지배하려 했다. 프랑스의 개입으로 인해 북부 지역과 서사하라만 포함했고 중부 지역은 프랑스가 확보했다. 이처럼 제국시대에도 서구 열강의 교역지로서, 모로코는 중요시되었다.

V. 결 론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개방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과거 삼각교역의 허브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모로코는 산업, 금융이 아프리카의 교통 물류의 교두보이자, 북미와 유럽의 교역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모로코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모로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이중적인 충성으로 높은 이민율이 나타난다. 모로코 사회에서 45세미만의 20%는 해외출생자로서, 프랑스 및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북미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모로코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진출이나 지역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 모로코 공동체의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본고는 한국과 모로코 간의 한류문화로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삼각교역의 허브로써, 기여할 수 있다. 그 분야로 에너지, 인프라, 항만시설, 원전 등 자동차 산업, 부품, 어로 장비, 가전 등으로 확대 협력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ESG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

모로코 국내 경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제한과 점포 운영 제한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모로코는 국민소득 향상과 도시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COVID-19가 여성 접근성을 높이고,

한류관련 산업이 점점 더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삼각교역과, 다각도의 교역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으로, 긍정적인 소프트파워를 확장될 수 있다. 기존의 K팝과 더불어 K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현재도 산업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의 또다른 소프트파워로 교육 서비스와 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Seo, Dae-sung. *The End of the Mediterranean – In counters in North Africa and Europe (Economic Understanding of Algeria, Morocco and Tunisia)*, Seoul: Edam Books. 2014.
- [2] WSCE. *Shall we find out about Morocco?* Seoul : WSCE. 2014.
- [3]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 brief overview of Morocco Rabat* : MOFA. 2018.
- [4] Youssef, E., Zaid, R., and Mohamed, E. K. *Economic barriers to green innovations in morocco: The case of a zero-energy house*,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2022; 975(1), doi:https://doi.org/10.1088/1755-1315/975/1/012005.
- [5] Erkut, B. *Renewable energy and carbon emissions: New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nion for the mediterranean*. Sustainability, 2022; 14(11), 6921. doi:https://doi.org/10.3390/su14116921.
- [6] Abdelaaziz, A. A., AZAROUAL, F., Bourhriba, O., and Dadush, U.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for africa and morocco*. St. Loui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2.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com/working-papers/economic-implications-war-ukraine-africa-morocco/docview/2643846462/se-2.
- [7] Alaoui, H. M., Radoine, H., Chenal, J., Yakubu, H., and Bajja, S. *Understanding the urban middle-class and its housing Characteristics – Case study of casablanca, morocco*. Urban Science, 2022; 6(2), 32. doi:https://doi.org/10.3390/urbansci6020032.
- [8] Tarek, B. H., Bilali, H. E., Allahyari, M. S., Islam, M. K., Hanen, B. I., Debbabi, H., and Sassi, K. *Gendered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food behaviors in north africa: Cases of egypt, morocco, and tunisi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2; 19(4), 2192. doi:https://doi.org/10.3390/ijerph19042192.
- [9] Chouki El Hamel. *Black Morocco: A History of Slavery, Race, and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ndon xii pp.331. 2013.
- [10] Auktor, G. V., and Loewe, M. *Subsidy reform 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contracts: The cases of egypt, iran and morocco*. Social Sciences, 2022; 11(2), 85. doi:https://doi.org/10.3390/socsci11020085.
- [11] Chahir, Aziz. *Morocco: Repression is no answer to fear of a new popular uprising*. Middle East Eye; 22 February 2021; Retrieved from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morocco-uprising-popular-government-crackdown.
- [12] Verme, Paolo and Khalid El-Massnaoui. *An Evaluation of the 2014 Subsidy Reforms in Morocco and a Simulation of Further Reforms*, i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No. 7224, March, 2015. http://hdl.handle.net/10986/21672.
- [13] Machado, Anna Carolina, Charlotte Bilo, Fábio Soares, and Rafael Osório. *Overview of Non-Contributory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Region Through a Child and Equity Lens*. Brasília: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2018. https://bit.ly/2SgT43B.
- [14] Wang, D., Guan, J., Liu, C., Jiang, C., and Xing, L. *Simulation of cooperation scenarios of BRI-related countries based on a GVC network*. Systems, 2022; 10(1), 12. doi:https://doi.org/10.3390/systems10010012.
- [15] John Wright. *Morocco: the last great slave market?*,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2002; 7:3,53-66, DOI: 10.1080/13629380208718473.
- [16] Saadallah, O. and Outtaj, B. *Morocco's Trade,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Integration into the African Union: Which Potential for Morocco's Foreign Trade?*. In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e, Economics, Management and IT Business – FEMIB, ISBN 978-989-758-507-4, pages 80-88. 2021. DOI: 10.5220/0010447400800088.
- [17] Seo, Byong-min. *A Study on the Strategy of Trade Entry into the Middle East Drug Market: Focusing on the UAE Market*. Trade Information Study. 2014; 16(2), 297-318.
- [18] Eloy Martín-Corrales. *Muslims in Spain, 1492-1814 Living and Negotiating in the Land of the Infidel*, Leiden : Brill. 2021.